

## 고조흥 국회의원 無혐의 처분

### 특정후보 공천과 연관성 찾지 못해 내사종결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종은 부장검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이 수사 의뢰한 고조흥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11월24일 내사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과 공천희망자 이모씨간에 현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서로 채무관계에 의한 것 이외에 공천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포천시장 공천자로 확정됐다 가 취소된 이모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 의원을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 조흥 국회의원은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 李下不整冠(이하부정관) 즉 오기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 매지 마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행동에 있어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동안 심경을 밝혔다.

또 고 의원은 "전정터에서 적에게 화살을 맞았으면 좋는데 등뒤에서 아군이 쏜 화살에 맞는 격"이라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나마 공천후보들이 당선되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포천·연천에서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잠시나마(공천자금 수수)

에 관해 오해를 주어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이번 결과(무혐의 처리)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리에 대해 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을 선거와 결부시킨 점을 검찰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했다"면서 "검찰에서도 계좌추적이나 모든 조사를 해 본 결과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변호사 사무를 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게 무슨 잘못이냐. 몇가 관계가 없었다는 일이다"고 공천자금 수수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조사 결과 포천과 연천 시장·군수 후보와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받지 않은 것이 증명됐다"면서 "누군가 음해를 하려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등뒤에서 화살을 쏜 격으로 확인 없이 소문만 믿고 당에서 너무 성급했다"면서 "당에서 나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천자금 수수에 관해 소문을 낸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럴 수 있지만 남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을리 없다"면서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



고조흥 국회의원이 검찰의 공천대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자기가 선출한 사람을 믿고 다음 선거 때까지 믿어 주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면서 "자기가 뽑아 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역민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적인 일에 치중하지 않고 권력남용도 않고,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질서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치란 일반 사회생활과 다르다. 냉정

하고 강력하게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유유부단, 내 맘만 믿는 것은 정치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과거 답습

### 관련 규정 변해도 지원은 그대로 단체 운영비 사업비 형평성 문제제기

포천시가 매년 50여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매년 6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02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해 2억7천여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보조금 지원단체 역시 2002년에 정액보조금 지원단체 6개 단체와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32개 등 38개 단체에서 2006년 51개, 2007년 47개 단체로 지원단체가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외에 관련법이나 조례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2006년 포천시가 사회단체에 지급된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7천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또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규정이 변했는데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단체 운영비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은 지역사회 공헌도와 사업규모 등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특정 단체에 지원금이 치우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과거 관행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부족한 예산은 회원들이 각출해 사용할 정도"라면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최소한의 예산은 분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금 단체와 임의보조금 단체를 구분해 지원금액 규모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이후 2가지 단체구분이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조금 지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년도 사업규모가 바뀌지 않는 한 매년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포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다만 사업목적외 영리를 위한 사업이거나 회원들을 위한 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각 단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운영비 지원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업비

지출보다 운영비 지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지원조례 규정자체가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각 사회단체 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각 단체에 지급되는 사업계획을 심의한다고 하지만, 단 하루에 50여개 단체가 제출할 수 백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 조례에는 보조금심의회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극히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포천문화원 2천500만원 ▶한국예총 포천시지부 4천100만원 ▶포천예술인동우회 200만원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회 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2천620만원 ▶이북5도인 포천시연합회 150만원 ▶재향경우회 포천시지회 300만원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7천721만원 ▶포천청년회의소 360만원 ▶새마을문고 포천시지부 5천980만원 ▶(사)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 4천900만원 ▶포천시해방대전우회 90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포천시지회 200만원 ▶포천시 재향군인회 900만원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600만원 ▶대한민국삼이군경회 포천시지회 1천9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포천시지회 1천2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포천시지회 1천400만원 ▶대한민국공수훈자회 포천시지회 1천400만원 ▶월남참전고엽제 포천시지회 600만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포천시지회 1천만원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250만원 ▶한국장애인부모회 포천시지부 370만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1천500만원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1천500만원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포천시지부 200만원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 300만원 ▶한국노총경기본부 중북부지부 400만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천지역대표자협의회 300만원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지부 200만원 ▶포천시택시노총조합협의회 500만원 ▶(사)한농연 포천시연합회 1천600만원 ▶(사)한여농 포천시연합회 800만원 ▶전국농민회 포천시지회 5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 200만원 ▶포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700만원 ▶(사)한국교통시민협회 포천시지부 200만원 ▶포천시정의회 400만원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포천시지회 200만원 ▶포천시교육삼락회 200만원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 700만원 ▶한국농어인협회 경기도협회 포천시지부 200만원 ▶세울공동체 300만원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600만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포천시지회 400만원 ▶포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00만원 ▶포천시민안전봉사대 800만원 등이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10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김소춘 50,000원(자동이체)
- 고남석 포천제일사우나 대표 270,000원(월정)
- 박해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100,000원
-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김중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원(자동이체)
- 강수동 삼우석재 회장 20,000원(자동이체)
- 서금자 포천시보건의료소 직원 30,000원(자동이체)
- 권경화 청정봉어집 대표 30,000원(자동이체)
- 산형숙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20,000원(자동이체)
- 임경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30,000원(자동이체)
- 이경호 인제대학교 제4대 총장 200,000원
- 강병수 선단동장 743,300원(1m/1원 모이기 운동)
- 윤종영 주부명예기자 80kg 1포대

#### ▶성금 및 물품전달내역

- 김대광 축석초등학교 3학년 200,000원
- 김소녀 신음동 쌀 80kg(1/5)
- 유간남 신음동 쌀 80kg(1/5)
- 이정희 신음동 쌀 80kg(1/5)
- 원영근 신음동 쌀 80kg(1/5)
- 김묘순 신음동 쌀 80kg(1/5)



장인정신의 혼과 맛이 담긴  
**플러상업 자기방가구** 직영 매장

■ 본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483  
■ 매장: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곡리 441-1  
■ TEL: (031) 542-3393  
■ H.P.: 011-292-3846 / 011-263-9148  
■ http://www.jagibang.com